중고차에 기대하는 완벽한 승차감

(에스더 5:5~14)

9. 그 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10.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11.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12.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 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13.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14.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중고차에 기대하는 완벽한 승차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중고차에 기대하는 완벽한 승차감'
독일에서 유학기간 동안에 차를 장만했습니다.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파사트라는 중형차로서 구입할 당시에 12년이 된 차였는데 제가 처음 갖는 차였습니다. 요즘의 기술로 만든 차라면 12년이 지났더라도 탈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독일차라고는 하지만 90년대에 샀으니 상태가 오죽했겠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보면 거슬리는 부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옆에 탄 집사람은 느끼지 못했는데 저 혼자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서 웬만한 부품은 폐차장에 가서 사다가 갈아 끼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정비공장에도 수십 번은 갔습니다. 책도 못살 형편이었는데 차를 고치러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에는 엔진이 극도로 차갑기 때문에 자동조절장치가 연료의 분사를 늘려야 하는데 고장이라서 조절이 안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유명한 마이스터조차 고치질 못합니다. 결국 제가 차를 뜯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번

호를 붙이면서 종이에 그려가며 분해를 하고, 그렇게 떼어낸 자동조절장치를 물을 부은 바가지에 담가 놓고 작동원리를 알아냈습니다. 결국 고쳐서 다시 끼운 후에 정비공장에 가져갔더니, 그 차의 수리를 포기했던 마이스터가 어디서 고쳤냐며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고쳤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12년 된 파사트는 결국 제가 원하는 승차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하나 고쳐서 만족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은 또 다른 곳이 거슬립니다. 결국은 차를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차에 빼앗긴 마음을 값으로 치자면 수억 원도 더 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서 어떻게 논문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근거로 기쁨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행동에 가치가 생기는 이유는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지 기쁨을 얻을 수 없다면 생각이 없고 의미 없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동적 기쁨과 능동적 기쁨을 나누어 생각했던 스피노자는 기쁨의 철학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 계몽사상가 몽테뉴도 마찬가지로 기쁨의 철학자로 불릴 만큼 기쁨에 대해 깊이 다루었습니다. 베르그송이나 장자 등의 철학자들도 생명현상의 본질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사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쁨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철학과 사상이 다양한 기쁨을 추구하고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참 기쁨은 가려져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은 창조이전부터 있었고 이 피조의 세계와 우주까지 없어진 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요 내 기뻐하는 분이시라”고 똑같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함께 교제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여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시도를 할지라도 참 기쁨과 영원한 기쁨에서 유보되어 있고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을 삶의 자리로 허락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군사 교육 예술 체육 등의 인간의 모든 방면의 모든 활동이 에덴이 뜻하는 바대로 기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 행동의 본질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타락이전의 아담의 우선적인 관심은 자신의 육체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기쁨을 가진 상태에서 모든 방면의 행동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모든 활동이 기쁨의 표현이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고 지불하는 것이 도리이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행동의 본질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에덴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완전히 변하고 맙니다. 타락 전에는 주어지는 기쁨으로부터 삶을 출발해서 기쁨을 지불하고 기쁨을 표현하며 살았는데, 타락 후에는 기쁨을 스스로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쁨거리를 정하고서 그것들이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은 곧 영원하고 참되고 완전한 기쁨을 주리라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타락 후의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중에서 신을 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돈 자녀 성공 형통 승진 결혼 등을 신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끝점의 유혹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멸의 길로 끌고 가는 유혹이 바로 기쁨을 완성하려는 끝점의 유혹입니다. 마치 중고차에 완벽한 승차감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고치면 승차감이 좋아질까, 저 점을 고치면 완벽한 승차감이 이루어질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고치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이고 끝내 완벽한 승차감은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어지는 신들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끝점을 주어서 완벽한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여 자멸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만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에 의해서 야기된 민족말살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이한 방법을 채택합니다. 민족말살의 위기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겪을 수 있는 위기 중에서 가장 극한적으로 애통하고 괴로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처하는 에스더의 방법이 특이하게도 두 번의 연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연회는 곧 파티입니다. 파티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가장 탁월한 방식입니다. 내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가장 극한적인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회를 동원합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연회와 두 번째 연회 사이의 불과 하루도 안 되는 동안에 하만의 상황은 급전직하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9~12절을 보면 하만이 공사양면으로 승승장구와 형통에 형통을 이어가고 있는 자기의 형편을 자랑합니다.
‘그 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 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합니다.
9절의 '그 날'은 에스더가 첫 번째 연회를 열고 왕과 하만을 초청했다가 잔치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날을 지내고도 하만의 마음에는 기쁨과 만족이 완성되지를 않았습니다. 모르드개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미 유대인이라는 종족을 말살해도 된다는 왕의 허락으로 조서를 받아 전국에 배포한 상태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명령대로 말살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만은 아직 성문에 있던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을 분노하면서 왕이 정한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때까지 기다려서는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중고차를 타며 완벽한 승차감을 느끼기 위해서 한 가지 거슬림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만은 모르드개를 목매달아 죽이기 위해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그러나 하만은 결국 자기가 세운 기둥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됩니다.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죽음의 방식을 결정하는 자멸의 길을 예비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기쁨의 끝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10억 벌기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10억을 벌기 전에는 10억만 벌면 만족할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10억을 벌고 나니 또 다른 아쉬움이 생깁니다. 이것만 고치고 나면 완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만에게 있어서 오점인 모르드개는 그저 기다리면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완벽한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기의 죽음을 예비하고 맙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철학자들과 모든 사상가들과 모든 종교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위한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 완벽한 기쁨을 주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결혼하면 기쁠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렇게 한 후에도 기쁨에는 또 다른 끝점이 보입니다. 또 다른 것을 이뤄야만 완벽한 기쁨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을 담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이즈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빈 구석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유를 찾게 만듭니다.

하만이 정말로 기쁘지 못하는 이유는 모르드개 탓이 아닙니다. 왕이 자신을 모든 신하들 위에 높여서 경배하게 하고 집안에는 자손이 번성하고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는 왕후가 연

회를 베풀어서 왕과 자신만을 초대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마음에는 채워짐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채워지지 않음이 자꾸만 이유를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르드개 때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모르드개를 이유로 지목합니다.

12년 된 중고차를 타면서도 차에 대한 기대가 없던 집사람은 차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좀 덜그럭거릴지라도 우리 형편에 이런 차라도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슈퍼까지 갔다가 집에 올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차에서 완벽한 승차감의 기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79년산 12년 된 중고차였지만 처음으로 산 차였기 때문에 옆에 벤츠600이 지나가더라도 내 차가 제일 소중했습니다. 거기에서 벤츠의 승차감을 기대했으니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100억을 소원해서 얻었을지라도 그것은 12년 된 중고차와 똑같습니다. 그 100억으로 기쁨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은 12년 된 중고차에서 완벽한 승차감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도 12년 된 중고차에서 완벽한 승차감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하고 1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배우자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치기를 기대하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끝점의 유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끝점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자기가 죽을 기둥까지 끌고 갑니다. 끝점을 없애고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나의 무덤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점만 이루어지면 완벽하게 행복할 것 같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고3인데 적어도 서울에 있는 5대 대학 중에만 들어가면 바랄 것이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힘껏 과외도 보내고 야단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하만이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기둥을 세우는 일에 불과합니다. 내 삶의 행복을 목매다는 형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만이라도 똑같은 유혹에 빠졌을 것입니다. 눈엣가시 같은 모르드개를 살려둘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을 해결하려는 몸부림을 통하여 자멸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끝점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끝점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완벽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근본적인 제1계명의 준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은 기쁨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쁨의 표현방식이어야 하고 기쁨을 지불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기쁨을 지불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 생활화에 매진함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에게로 마음을 보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을 채우고 삶을 살면서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지불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업이든 자녀양육이든 결혼이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기쁨이 차기 전에는 행동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에덴을 삶의 현장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의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재생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기까지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